

# 엔터테인먼트

## Entertainment

장나라 6년만의 컴백  
KBS '동안미녀' 출연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장나라가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동안미녀'로 6년만에 국내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15일 소속사에 따르면 '동안미녀'는 직장생활 해고당한 고졸 학력의 32살 여성이 7살 어린 동성 신분으로 위장 취업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드라마로 장나라는 여주인공 이소영을 연기한다.

장나라의 드라마 출연은 2005년 KBS '웨딩' 이후 처음이다. 상대역으로는 '지붕뚫고 하이킴'에 출연했던 최다니엘이 캐스팅됐다.

'동안미녀'는 '강력반' 후속으로 5월초 방송을 시작한다.



'위험한 상견례'  
송새벽



마더

방자전

시라노: 연애조작단

부당거래

## '명품 조연' 마침내 주연 됐습니다

"연기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은 없어요. 역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발버둥쳤는데 그때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힘을 뺐더니 제가 찾던 것들이 저에게 저절로 오더라고요."

송새벽은 충무로에서 온 좋은 배우로 통한다. 그럴 만도 하다. '마더'(2009), '방자전'(2010),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부당거래'(2010) 등 네편의 영화에서 큰 시선을 끌었고, 다섯번째 장편영화 '위험한 상견례'에서는 주인공을 맡았기 때문이다.

고속 궤도를 밟고 승승장구하는 모양새지만 대학로에서 꾸준히 실력을 키워 온 끝에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성공 기반은 상당히 단단하다.

1998년 연극으로 데뷔한 그는 2002년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극단 연우무대에 들어가 '날 보러와요' '해무' 등에 잇따라 출연한 10년차 넘는 배우다.

연극에서 주연으로 명성을 날린 그는 영화 데뷔작 '마더'에서 세팍타크로 형사로 나와 주목을 끌더니 변태 변화도로 등장한 '방자전'에서 이른바 대박을 치면서 충무로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다. '주연보다 나은 조연'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영화에 잇따라 출연했고 작년 대중상을 비롯한 각종 영화상에서 신인상을 싹쓸이했다.

첫 주연작은 그를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코미디 장르다. '위험한 상견례'는 지역감정이

"은 좋지만 연극무대 10년 내공 '빛' 비슷한 연기 지적 관심이라 생각해 감사  
이제 데뷔 2년... 보여드릴 것 많습니다"

격하던 1980년 말을 배경으로 전라도 남자와 경상도 여자의 순탄치 않은 결혼 과정을 그린 코미디다. 광주 총각 현준으로 나오는 송새벽은 부산 처녀 다홍으로 등장하는 이시영과 호흡을 맞췄다.

그는 "유쾌하게 전개되는 영화의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었다. 유쾌함 밑에 깔린 애잔한 감정들이 가슴을 저 울연을 결심했다"고 했다. 코미디를 표방한 영화답게 '위험한 상견례'는 코믹한 상황과 사투리가 깔린 차진 대사가 시선을 끈다.

"재밌는 캐릭터는 좋죠. 하지만, 웃기고자 연기를 한순간은 맹세코 단 한 순간도 없었어요. 상황에 치중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가 첫 주연작으로 코미디를 선택했을 때, 또 비슷한 스타일의 연기를 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었다.

"사실 그런 지적이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사실 연기가 비슷하다'는 지적은 약간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마더'로 영화에 데뷔한 지 이제 겨

우 2년 정도 됐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다음에 들어가야 할 소리인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주세요."

'위험한 상견례'의 촬영은 순조로웠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선배들과의 촬영이어서 처음에는 조금 부담이 됐어요. 하지만, 백윤식 선생님이나 김수미 선생님 등 여러 선배들께서 너무나 편하게 대해주셔서 그 걱정이 사르트르 녹았습니다."(웃음)

이시영과는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다. "원래 여성 연기자들과 말을 잘 못 튄다"고 웃은 그는 "이시영 씨에게 맞는 장면이 있었어요. 진짜 아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권투 선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죠."(웃음)

그는 이번 영화에서 "사투리 연기가 가장 힘들었다"며 "꼭꼭 출신 선배 연기자의 말을 녹음해 MP3로 들으며 전담 사투리를 열심히 연습했다. 관객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다. 금급하다"고 했다.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냐는 물음에 송새벽은 이렇게 말했다.

"가슴 언저리의 여딘가를 움직일 수 있는 영화들을 고를 거예요. 그런 영화들을 하고 싶어요. 제 연기철학이요? 무대 위에서나 아래서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좋은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연합뉴스

'49일' 정일우

## '시크'한 저승사자 본적 있나요?

"요즘 남자 뱀새가 난다는 말이 많이 듣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을 통해 '남자 정일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표정에서 환한 기운이 퍼져나왔다. 마냥 좋은 듯했다. "거침없이 하이킴" 첫방송 기다릴 때처럼 설렙니다. 오로지 연기 자체에 집중하고 연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때였죠. 하지만 그 후의 작품에서는 모두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게 되니 설렙 대신 긴장되고 부담됐어요. 연기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왔습니다."

16일 첫선을 보이는 SBS 판타지 멜로 드라마 '49일'에서 정일우는 저승사자 역을 맡았다. "무엇보다 지금 제 나이에 어울리고 제 색깔과 맞는 캐릭터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승사자라 하면 식상한 면이 있는데 작품 속 저승사자는 전혀 달라요. 시크하고 쿨하면서도 귀여운 면도 있는 신세대 저승사자입니다. '와 이게 정말 매력적이다' 싶었어요."



"패션리더·클럽마니아... 신세대 저승사자 매력적 제웃 입은듯 편하고 즐거워요"

'49일'에서는 저승사자가 '스케줄러'라는 현대적(?)인 이름으로 불린다. "21세기 저승사자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꿔야해서 어께가 무거워요.(웃음) 패셔너블하고 자유분방한 저승사자입니다. 옷이 수시로 바뀌어 스타일리스트가 힘들어해요. 저승사자인데 오토바이도 타고 클럽에서 놀기도 해요. 멋지죠?"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사랑의 판타지를 그리는 '49일'에서 그는 결혼식 전날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지현(남규리 분)의 회생을 돕는 역할이다.

2006~2007년 방송된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킴'에서 반항아 연기로 스타덤에 오른 정일우는 이후 '일지매'에서 타이틀 톨을, '아가씨를 부탁해'에서는 주연 3인방 중 한 명을 맡았지만 잇달아 흥행에 실패했다.

"거침없이 하이킴" 이후에는 내리 반항아 캐릭터가 들어와 각각 1년여씩 쉬게 됐어요. 공백기를 두고 제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밝은 캐릭터를 기다렸습니다."

멋진 저승사자 연기를 위해 체중감량도 했다. "2주 만에 5-6kg 뺐어요. 저승사자가 살찌면 보기 싫잖아요. 이번에는 먹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좀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연합뉴스

CBS Multimedia Group



# Beyond CBS!

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CBS\*

희망의 메시지와 건강한 여론이 CBS 멀티미디어 세상에 있습니다.



2010 CBS 캠페인·나누면 희망이 됩니다.

노컷뉴스